

금융상황 점검회의

2019.8.5.(월) 08:00  
정부서울청사 16층 회의실

#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

2019. 8. 5.

금 융 위 원 회

## 1. 금융시장 동향

### □ 지난 8.2일

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 
한국을 배제한다는 발표는  
우리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.

- 코스피는 7개월여만에  
2,000포인트 선을 하회하였고,
- 원/달러 환율은 1,198원으로 마감되어  
2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

### □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발표도 있었지만

- 8.2일 새벽  
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 
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될 우려가 커졌습니다.
-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\*가  
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 
함께 작용하였습니다.

\* 미국 현지시간 7.31일 FOMC에서 기준금리 25bp인하(→2.00 ~ 2.25%)

### □ 다만,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

지난 8.2일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 
글로벌 증시가 동반 하락세를 보였으나,

- 오히려 우리증시는  
상대적으로 더 적은 하락폭을 기록하였습니다.

※ 주요국 증시 하락폭(8.2일 기준, %) [미국은 현지시간 8.1일 기준]  
**(한국kospi) △0.95** (일본nikkei225) △2.11 (중국상해) △1.41 (홍콩항셍) △2.35  
(미국dow) △1.05 (독일dax30) △3.11 (프랑스cac40)△3.57 (영국ftse100) △2.34%

## 2. 현 상황에 대한 평가

□ 최근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 
미중 무역갈등,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 
대외적 경제 환경이  
우리나라 수출과 기업 실적에 우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.

- 여기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 
부정적인 요소가 더해지면서  
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

□ 그러나,  
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 
지난 7월초부터 예상했던 이벤트로  
그 영향이 시장에 상당부분 선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.

- 앞으로 우리기업들의 생산과 수출에  
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,
-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 
정부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
- 민·관이 총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 
미리 예단해서 불안해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.

□ 경제 체질이나 대외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 
우리나라는  
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액\*를 유지하고 있고

\* 외환보유액 추이(억\$) : (97) 204 (08) 2,397 (19.7) 4,031.1

- 단기외채 비율도  
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
\* 단기외채비율(%) : (97) 286.1 (08) 84.0 (19.3) 31.6

☐ 또한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\*도

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,

\* 외국인 순투자동향(19.1~7월중, 조원) : (주식시장) +6.9 (채권시장) +10.1

○ CDS 등 국가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

양호한 수준\*을 유지하고 있어,

\* CDS 추이(5년, bp) : (16말) 44.3 (17말) 52.2 (18말) 39.5 (19.8.2) 30.01

○ 아직까지

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평가에  
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

### 3. 대응 방향

☐ 그러나

향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과 함께

미중 무역분쟁, 노딜 브렉시트 등

우리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 
하반기 경제 여건도 녹록치 않습니다.

☐ 금융당국은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

국내외 금융시장상황을

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

차분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

○ 기재부, 한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

시장불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,

○ 필요시 시장상황별로 기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

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

☐ 감사합니다.